

우크라이나 10월 선교

살롱!

그동안 오랫동안 선교 소식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소식을 소홀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선교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직무유기의 죄를 조금 책임을 회피하고자(?) 변명거리를 몇 가지 늘어 놓고자 합니다.

여름 청년 수련회

LA 든든한 교회의 단기 선교팀들과 니콜라이브 교회(김 알렉목사), 할렐루야 교회의 세 교회가 청년들 대상하여 3박4일 '견세' (건고한 크리스찬 세우기)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든든한 교회의 단기 선교팀의 탁월한 준비와 섬김과 인도로 42명의 불신자 대부분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들의 구원의 믿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년만의 직분자 임직식

10월 첫 주 금요일 임 발렐리 집사님과 김 루스란 집사님의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에 피택되어, 꼭 일년 만에 임직식을 갖게 된 셈입니다. 감사하게도 일 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성실하게 잘 따라 오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정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같은 교단 이성현 선교사님, 그리고 오데사 현지인 이반노프 목사님과 정정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임직식 때의 은혜는 당사자가 가장 많았겠지만, 저 또한 많은 은혜와 감회가 컸는데, 우크라이나 온 지, 꼭 10년 만에 처음 임직식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겨우 두 명(?) 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아직 두 분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계속 두 집사님이 할렐루야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두 결혼식

두 주 간격으로 마리나 전도사님 외아들 김 사샤와 흐반 디아나와 박 율라와 데니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외에, 모두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어서 집안 결혼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샤와 디아나는 오후 4시에 결혼식을 한 후, 곧바로 교회 마당에 피로연(이곳은 결혼식이 따로 없고, 저녁 피로연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피로연 때에 하객이 참석합니다)을 가져, 교회 설립 후 가장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들 새로운 가정이 교회의 미래의 기둥으로 세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반쪽 어른 수련회

해마다 봄, 가을에 교회 어른신을 위로하며, 신앙 수련회를 1박2일로 가집니다. 이번에는 개척 중인 아비디오폴에 계시는 고려인 어른신들 중심으로 전도 수련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교회 어른신들만 참석하셨는데, 어느 때보다 유익한 시간을 가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년 봄 수련회에는 아비디오폴 어른신을 모셔서 전도 수련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합니다.



11월 23일 교회 건물 재판을 기도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소송한 재판을 중도에 종결시키고, 23일 시 의회에서 소송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상대측에서 소송을 서둘러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시간을 끌기 위해 저희들 소송을 종결한 것에 이의 신청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 종결한 재판이 속개되며, 알렉세이 변호사에게 지혜와 입술의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부탁합니다.